

이기는 삶

인간관계 그르치는 대화



대화(對話) 중 무심결에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人格)을 대변한다. 땅에 옆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내뱉은 말 또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慎重)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듣기보다는 나서서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다 보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쓸데없는 말이 더 많게 된다.

이러한 경우가 반복되다 보면 습관(習慣)이 되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게 되어 되도록 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생활에서 흔히 저지르는 인간관계(人間關係)를 그르치는 대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문제 삼는다. 과거에 대한 집착(執着)을 버리지 못하고 “~했어야 했는데...”라고 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인정받고자 한다. 또한 자신에게 섭섭한 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좀처럼 불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일이 끝났음에도 다음 일로 넘어가지 못한다.

둘째, 무엇이든지 의심(疑心)하고 억측

(臆測)한다. 무엇이든지 자기 일로 받아들여 기어이 다른 사람이 하는 대화 내용을 알고 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자신을 따돌린다고 느낀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그렇지 못하면 “불만불평”을 늘어놓는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자존심(自尊心)이 강하여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셋째, 도덕적(道德的)인 설교(說教)만 늘어놓는다. 모든 것을 도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고, 무슨 말을 하든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꼭 자신의 고생담(苦生談)을 늘어놓는다. 진부한 속담(俗談)이나 격언(格言)을 자주 인용(引用)하는 것도 큰 특징이다.

넷째, 남의 권위(權威)를 내세워 잘난 척한다. “사장님이 말했듯이” “사후에도 있듯이...”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남의 판단(判斷)에만 의존(依存)해서는 지성(知性)을 발달시킬 수 없다. 상황(狀況)에 맞게 스스로 판단해야만 그 사람의 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난해한 말로 연막(煙幕)을 친다.

본인도 이해 못하는 어려운 말을 사용한다. 이런 사람들은 외래어를 많이 쓰는 특징이 있다. 무리해서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상대(相對)의 수준(水準)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떠드는 것밖에 안 된다.

이상의 내용들이 실생활에서 흔히 저지르는 인간관계를 그르치는 대화 습관의 예이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가? 그러나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다. 말을 해놓고는 “내가 괜히 그 말을 했구나!”하고 후회한 적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말의 실수(失手)를 하지 않으려면 3번 이상 생각한 끝에 입을 열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努力)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해서 후회(後悔)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난해한 말로 연막(煙幕)을 친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

지금은 본연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이다. 하나님이 안되면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 구렁텅이에 들어가느냐? 선택은 둘 중의 하나이다. 이긴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아야 하는 운명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긴자가 나온 다음에 이긴자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 영원무궁토록 사는 팔자가 되어버린다. 세상에서는 운명을 팔자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긴자를 전지전능의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오는 자는 이긴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신진대사 up ^^

운동도 내 몸의 능력 따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마음 문을 열고 시작해보자. 특히 추운날씨에는 관절에 무리 없도록, 근육 강화에 도움되는 요가로서 오늘의 피로는 오늘 풀어 유연성과 부드러운 관

절로 건강한 오늘을 만들어 보실까요?

동작①: 왼쪽 다리를 앞으로 접는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어 발등을 바닥에 댄다. 양손은 바닥에 짚고 상체를 바로 세워 시선은 정면을 바라 본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①

척추 기립근 강화 ^^

동작②: 1번 자세에서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끌어 올리고 고개를 들어 내쉬는 숨에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고 하늘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②

혈액순환 대사기능 up ^^

동작③: 2번 자세에서 숨을 마시며 고개를 들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배꼽부터 천천히 바닥으로 내린다. 양팔을 머리 위로 뻗는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③

후굴력을 높여 림프 흐름 촉진 ^^

동작④: 현 자세에서 오른쪽 무릎을 접어 귀 옆으로 올린다. 오른쪽에 발목을 걸어서 등 뒤에서 왼손을 잡는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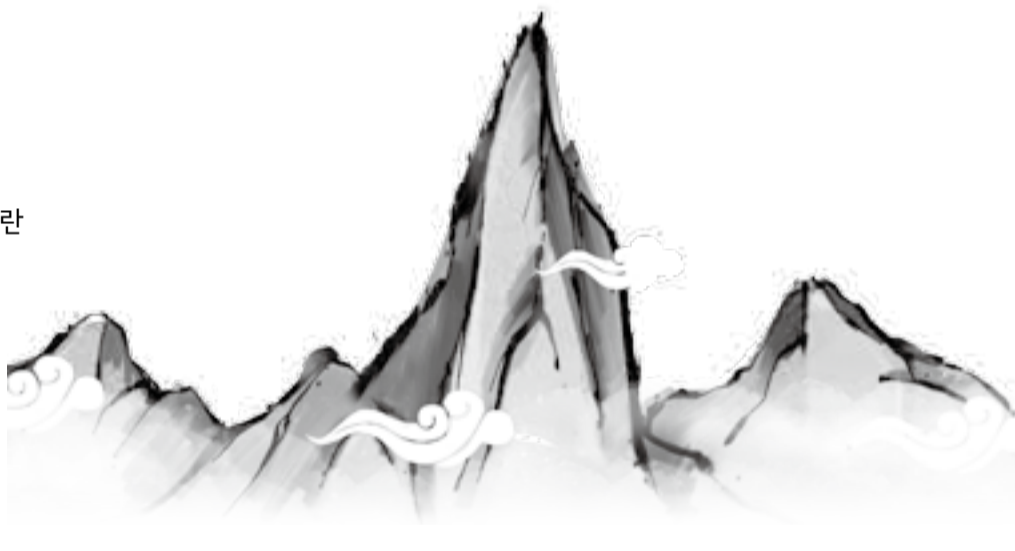


격암유록 新해설 제114회

일심으로 기도하면 고금(古今)에 없던 대천재(大天災)라도 그 환란이 감제(減除)되느니라

말중운(末中運)

修道先入天民 수도선입천민들아
不撤晝夜哀痛 불철주야애통하며
一心祈禱退却 일심기도퇴각하소
鑒判以後初有大亂 조판이후초유대란
無古今 무고금의 大天災대천재나
擇善者 택선자를위하여서
大患亂 대환란이 減除 감제되지
好運受人人心和 호운수인인심화면
百祖一孫退去 백조일손퇴거로서
鼠女隱日隱藏 서녀은일은장하니
三床後臥 삼상후와사라지고



십삼의 도를 닦으려고 먼저 들어온 하늘 백성들이 불철주야(不徹晝夜) 애통한 마음으로 일심을 다해 지구 정성으로 기도하여 이 환란을 물리치도록 하여라. 천지조판(天地鑒判) 즉 천지가 생겨난 이후 처음 있는 대환란은 고금(古今)에 없었던 대 천재지변(天災地變=지진, 홍수, 태풍, 전염병등의 재앙)이지만 태함을 받은 선한 자들을 위해서 대 환란이 줄어들게 되느니라. 호운을 받아서 사람 사람마다 마음이 화평하면 백조일손 즉 백 명의 할아버지에 한 자손만 겨우 살아남게 되는 악조건이 물러감으로써 선달 스문 날은 숨어 버리니 세상이 놀라 뒤집히는 일이 사라지느니라.

화(和)란 하나님의 마음(中)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중산 선생은 중화경(中和經)에서 중(中)은 도(道)의 체(體)가 되고 화(和)는 도(道)의 용(用)이라고 한 바 있다. 하나님은 화(和)로서 모든 것을 용사(用事)하시는 것이다(天下萬事應和仙). 불화(不和), 불협화음(不協和音), 불순종(不順從)은 그 반대 가 될 것이다.

修道天民一心和 수도천민일심화면
三豐之數豐滿故 삼풍지국풍만고로
辛癸壬三虛事 신임십삼하사되니
百祖三孫送 백조삼손하송하고
壬癸癸三運 임십삼삼운이오면
百祖十孫好運 백조십삼호운으로
見不牛而啼 見不牛而啼牛聲 견불우이암우성
天下萬方遍滿 천하만방편만하여
勝利翻波雲霧高 승리개개운소고에
오는 風波十日之亂 풍파십일지란
一天下之天心和 일천하지천심화로
十日之亂不俱 십일지란불구로서
世上征腹 세상정복하고보니
靑龍白馬三日亂 청룡백마삼일란에
龍蛇交爭好運 용사교쟁호운으로
十祖一孫 십조일손되을 것을
彼此之間不利 피차지간불리로서
聖壽何短不幸 성수하단불행으로
天火飛落燒人間 천화비락소인간에
十里一人難覓 십리일인난역이라
十室之內無一人 십실내내무일인애
一境之內亦無一人 일경내내무일인

도를 닦는 하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

어 화합(和合)하면 하늘나라 곡식인 화우로 삼풍 해인이 온 천지에 풍년 들게 되어 신랍임삼(辛臘壬三=신축선달-임인삼월=음2021.12~2022.3)의 환란이 없어지리라. 이에 백 명의 할아버지 가운데 자손 세 명이 사는 악조건도 사라지느니라. 임십삼계삼(壬癸癸三=임인선달-계묘삼월=음2022.12~2023.3)에 호운이 와서 백 명의 할아버지 가운데 자손 열 명이 살아나니 소는 보이지 않는데 암마를 찾는 소 울음 소리가 천하에 찻 착고 승리의 기쁜 노래(삼위일체하나님이 마귀를 이겼음을 노래함)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느니라.

거세게 밀려오는 풍랑피도와 같은 십일지란(十日之亂)이라도 온 천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화합하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느니라. 갑진 을사의 호운

에 갑진년 경오월 삼일지란(三日之亂)이 있을 때 열 할아버지에 한 자손이 살게 될 터인데 성인의 수명이 어이 그리 짧게 끝나는가? 불행하게도 피차지간(彼此之間) 불리하여 하늘에서 불이 날아와 떨어져서 인간을 태워 버리니 십리(十里)에 한 사람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열 집에 사람 하나 볼 수 없으며 한 경(境)내에서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느니라.

二尊土로 이존사로 得運 득운하니
鄭氏再生 정씨재생알리르다
白馬公子得運 백마공자득운으로
白馬場 백마장이 이름이고
白馬乘人後從者 백마승인후종자는
仙官仙女天軍 선관선녀천군이라
鐵馬三千自天來 철마삼천자천래는
鳥衣鳥冠走東西 조의조관주동서를

목운과 금운으로 오신 두 분이 운수를 얻어 정도령(목운+금운)이 재생함을 알리르다. 백마공자(白馬公子=금운으로 오신 정도령)가 운을 얻어 백마장(白馬場)이라는 이름이 생겼는가? 금운으로 오신 구세주를 따르는 자들은 선관선녀(仙官仙女)로서 천군(天軍)이라 철마 삼천이 하늘에서 내려와 새의 의관을 하고서 동서로 달려가도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샘 | 동학 후손들이 왜 서양 코쟁이에게 빠져 있을까?
호주 시드니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품점이 많다. 각 식품점은 고객유치의 한가지 방법으로 물품을 산 액수에 일정 포인트를 주어 할인을 해준다.
Epping이라는 지역의 어느 한인 식품점에서 식료품을 사고 나오려는데 포인트를 적립시켜주려다면서 나의 이름을 물어왔다. 평소 누구든지 하나님이고 본인도 하나님의 소유물이기에 하나님이라고 여기기를 태연스럽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으로 해주세요 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했다. 나를 보는 아주머니의 눈빛이 문자 그대로 냉소적이었다.
“앗불사!”
순간 큰 실수를 했구나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3초가 흘렀을 까,
“이름이 하나님이라 하셨죠?”
“예”
굽신거리며 얼른 대답을 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도 하나님으로 적립시켜주었고 난 살그머니 식품점을 빠져 나왔다.
영수증을 건네주던 그 눈빛 속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미친놈 다 봤네 그러.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고있군..”
거리에 나와 혼자 걸으면서 킁킁대고 웃었지만 이내 씁쓸해진 기분이 찾아왔었다.
호주 시드니에도 한국교회가 차고 넘친다. 동학의 후예들이 어째서 예수라는 서양코쟁이에게 빠져 있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동학사상은 다 잊어버렸는지 통탄할 노릇 아닌가. 이 큰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일이 있고 얼마뒤 그 식품점 아주머니는 paramta라는 지역의 공원에서 목이 졸려 죽은 채 발견되었다. missing 사건으로 경찰이 수배를 내렸는데 거기서 발견되었던 거다. 식품을 대주던 납품업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납품업자가 죽어 버렸다고 소문으로 들렸다. 아까운 한 사람이 또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 아주머니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참스리 떠올려 봤다.
“인즉천인데 이것을 알리기가 참으로 힘들다. 자신이 본래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면 하나님답게 살아갈 공리를 할텐데. 하여 바람 필 업두도 못 가질 텐데.. 엉터리로 사니까 비명횡사도 당하는 게 아닐까..”
승리재단 시드니책임승사 안준영
연락처 0415 727 001
dap21b@gmail.com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재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